바이오특화도시로 다시 뛴다

익산시, 전북자치도 바이오특화단지 공모… 전주·정읍과 바이오 삼각 편대
꾸준한 바이오 인프라 조성 결실 맺을 차례… 바이오생산지구로 변모 꿈꿔

'전북형 바이오 삼각 편대'의 한 축을 맡은 익산시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0일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발표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정부는 특화단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바이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포부를 발표했다.

공모 도전에 나선 전북특별자치도는 익산과 전주, 정읍을 연계해 전북형 바이오산업 삼각 편대를 구성하는 특화단지 조성 계획을 지난 2월 정부에 제출했다. 각 지역에 산재한 바이오 역량을 한데 꿰 거대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중 익산은 '인체·동물 바이오 생산지구' 역할을 맡는다. 사실 익산은 지역 발전을 이끌던 굴뚝산업이 쇠퇴기를 맞으면서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이에 시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바이오 중심 산업 생태계로의 발 빠른 전환에 나서며 꾸준한 혁신을 거듭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헌율 익산시장의 풍부한 경험에서 비롯된 혜안과 속도감 있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특유의 추진력이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헌율 시장은 민선 8기 시정목표를 '미래를 선도하는 바이오 산업도시'로 정하고 유기적인 활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바이오농정국 조직을 개편했다. 또 빠른 판단으로 바이오 기반시설 유치에 일찌감치 나선 덕에 국내 첫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가 안정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시는 바이오 특화 산단을 표방하는 제5산단 조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공영개발과를 신설했으며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산단 조성 이전의 바이오 기업 분양 수요에 대비하고자 3산단 확장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연이은 성공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감은 좋은 추진제가 되고 있다. 최근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동물헬스케어클러스터, 교육발전특구 등 굵직한 공모사업을 유치했다. 모두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무장해 거둔 값진 성과다.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익산의 진심은 국내 대장급 바이오 기업들의 마음도 움직였다. 국내 대표 레드바이오 기업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레드진, 제이비케이랩이 익산시에 둥지를 틀기 위해 연이어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그럼에도 익산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다. 수도권 대비해 고급인력이 부족한 현상은 익산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이 한목소리로 우려하는 지점이다. 이에 시는 바이오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 교육기관과 다방면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대학과 협력해 혁신융합대학원 신설, 의사과학자 양성, 첨단바이오 산업 맞춤형 특화과정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 원광대학교는 '전북 바이오 산업육성을 위한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 비전 선포식'에서 바이오 산업 인재 양성 혁신모델 구축에 대한 실현 계획을 공유했다.

원광대는 △AI 신약 플랫폼 구축 △오가노이드 뱅크 구축 △오가노이드 오간온어칩 소부장 개발을 통해 정밀의료기기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익산시와 연계해 지역 학생들의 진로 교육과 생명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 혁신을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정헌율 시장은 "그간 바이오산업도시를 만들기 위해 들여온 수많은 노력이 전북자치도 바이오 특화단지를 통해 결실을 맺을 시기"라며 "지방소멸 시대에 새로운 거점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설명회 개최

군산시는 최근,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인증사회적기업 24개소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요령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선 △기업 현황 △사회적 목적 재투자 △재정 성과 △고용현황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지역사회 공헌내역 등의 주요 내용을 작성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사회적기업은 의무적으로 매년 4월 말, 10월말 2회에 걸쳐 온라인사업보고서를 사회적기업 통합시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만 한다.

이는 기업이 인증 취지와 인증요건에 따라 운영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사회적·경제적 성과분석 등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모 사회적기업 대표는 "올해부터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 지원해주던 사전검토 과정이 축소되어 사업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컸다. 다행히도 군산시에서 이런 설명회를 개최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기업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군산시는 2024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접수를 이달 말까지 받고 있다. 이번 신청을 통해 군산시는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늘푸른도서관 '아이사랑한마당' 행사 운영

군산시 늘푸른도서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아이사랑 한마당' 문화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도서관 맞춤 문화행사로써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연·강연·체험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었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14일 '공룡매직쇼', 18일 '솜사탕 공연', 21일 '과학마술 콘서트'를, 강연 프로그램은 18일 '모모모모모', '걱정머리' 등의 저자 '밤코 작가와의 만남'을 운영한다.

체험 프로그램은 7일부터 25일까지 '카네이션 화분 만들기', '펩아트', '꽃다발도시락 만들기', '유리공예: 유령키링 만들기' 등 가족 및 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5월 한 달 동안 '책 속 한 장면 그리기', '가족 관련 도서 전시 및 대출', '독서명언 포춘쿠키 뽑기' 등도 상시로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신청은 1차는 5월 1일, 2차는 5월 8일 오전 10시부터 시립도서관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어린이와 온가족이 도서관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로 책에 더 가까워지고, 함께 힐링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제9기 어린이 청소년의회 발대식 개최

군산시는 지난 27일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제9기를 맞는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지난 5일 의원 38명을 모집하고 발대식을 개최함으로써 힘찬 출발을 내디뎠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의원 선서 △군산시장 인사말씀 및 내빈 축사 △기념촬영이 이루어진 데 이어, 2부 행사로 △연간 활동 일정을 안내하고 의원 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활동이 진행되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에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의원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어린이·청소년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꽃바람 정원 만들기 행사' 큰 호응

익산시가 녹색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꽃바람 정원 만들기 행사'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지난 26일 신흥공원 내 꽃바람정원에서 총 15팀, 약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꽃바람 정원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정원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익산산림조합,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 등 단체가 참여해 직접 꽃을 심고 가꾸며 함께 정원만들기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창의성과 개성을 담아 정원을 만들 뿐만 아니라 각자가 정원사 역할을 담당하며 조성부터 사후관리까지 직접 참여해 더욱 의미가 있었다.

익산시는 백일홍, 가자니아, 베고니아 등 초화류 총 2만 본을 제공하고, 산책로와 사진 명소를 조성해 시민들이 소중한 추억을 담아갈 수 있도록 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꽃바람정원이 이름에 걸맞게 향긋한 꽃바람을 일으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벼 신품종 재배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다

식량작물분야 시범사업 농가 대상 참동진·미호·참누리 재배교육 실시

익산시가 지역 적합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과 신품종의 원활한 종자 공급을 위해 농업인 역량강화에 나선다.

시는 지난 26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관에서 농업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동진·미호·참누리 벼 재배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식량작물분야 3개 시범사업인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식량작물 신품종 종자 생산기반 단지 조성 △기후 적응형 벼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주력 품종인 신동진 벼의 보급종 공급과 공공비축미 제한, 돌발 병해충으로 대체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익산시는 참동진·미호·참누리 벼에 대한 품종별 특성과 육묘 관리, 재배법, 주의 사항 등 농업인이 궁금해하는 재배 핵심 기술 교육을 마련했다.

참동진은 신동진 품종의 우수한 밥맛과 특성은 유지하면서 벼 흰잎마름병에 강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미호는 도복에 강하고 농사짓기가 수월하며 소비자의 반응도 좋아 농가의 관심과 호응이 증가하고 있다.

참누리는 최근 육성품종으로 병해충에 강하고 미질도 양호해 채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벼 안정 생산과 기존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최고품질 벼 확대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벼 신품종에 대한 품종 전시포 활용과 교육, 시범사업을 통해 농업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2·청년저축계좌 모집

군산시에서 5월 1일부터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차상위 초과) 2개로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5월 1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하는 희망저축계좌2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월 10만원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월10만원을 3년간 지원해주며, 만기 해지하면 72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근로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차상위 이하 근로청년과 차상위 초과 근로청년으로 나눠 모집한다.

우선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근로 청년(15세~39세 이하)의 경우, 희망저축계좌2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월 30만원을 3년간 지원, 만기 해지하면 1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반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 지원금이 다르므로 자신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봐야 한다.

차상위 초과 근로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이 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월 10만원을 3년간 지원하여 만기 해지시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 /군산=이재춘 기자